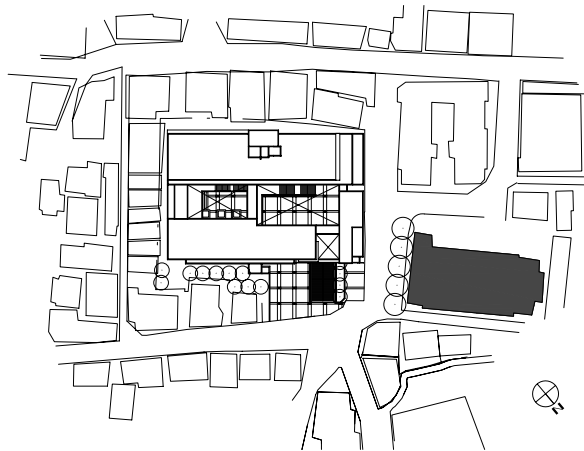


비전하우스(브니엘교회교육관)

Vision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43-1
-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대지면적 2,163㎡
- 건축면적 1,275.71㎡
- 연면적 4,618.80㎡
- 건폐율 58.98%
- 용적률 141.84%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직물벽지
-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토탈시스템, 마천석 버너마감
- 설계담당 탁현경, 안광순
-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다양한 복합교육기능

비전하우스가 수용할 기능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회의 교육 및 부속시설이 외에도 신학교,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등이 배치되어야 하고 아동시설과 중예배실 외에 30여 개의 개별실이 요구되어졌다. 다양한 각각의 기능들은 그 성격에 따라 개별단위로 분절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용시점에 따라 범위가 확장되고 겸용되어야 하는 유연한 연계가 이루어 져야한다.

끌어들임과 에워쌈

어프로치나 개별영역들이 독립적이어서 하는 문제로 외부영역을 깊숙이 끌어들이는다. 또한 직교하는 두 방향-건물의 전면이 되는 북측 일방진입도로 측과 기존교회로의 방향-모두를 건물로의 진입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접지 층의 넓게 개방된 영역은 매개영역이 되어 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으로 향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공경험과 사적인 실체를 모두 접하게 되는 공간이 된다.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온 평면적으로 고밀 하고 혼합한 지역환경의 특성과 열려진 공간의 만남은 서로 상충하는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통합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근거가 되었다. 즉 교육공간으로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지역민에게는 개방되어 쉼의 공간으로 배려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열악한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매개적공간의 의미는 교회와 지역모두의 공통의 가치적 배경으로 자리잡으며 상호의존적이 될 것이다.

룸 나누기를 통해 발생하는 에워쌈은 공공으로부터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갖게 하고 수직으로의 관통으로 개방감도 획득하여 다양한 기본단위들이 복합체로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구축한다.

건축물로 유입되는 수평·수직의 이동경로와 데크들은 확정된 프로그램이 아닌 경험의 시퀀스로 공간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며 건축적 틈이 되어 이용자에게 자신의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뜻밖의 활동이나 이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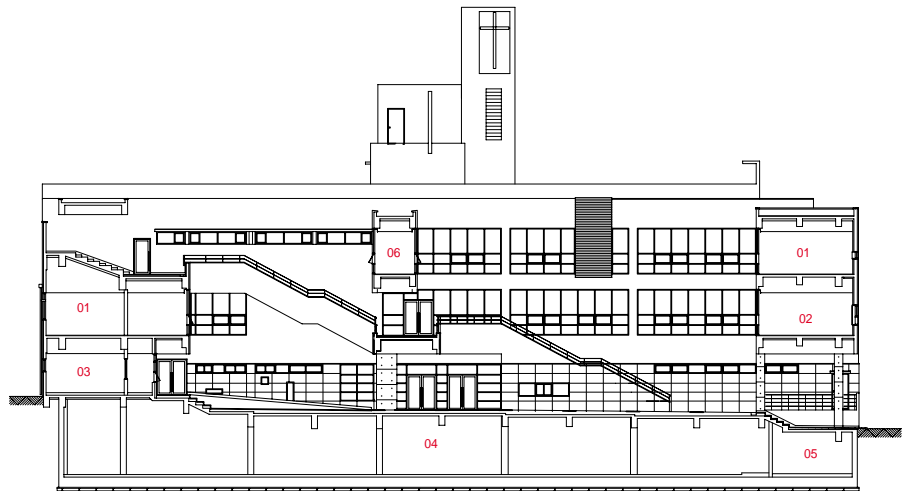
또한 내·외부의 어느 시점에서나 이용자 모두에게 움직임이 관찰되고 보여지고 마주하는 것은 친밀함과 생동감 있는 교육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임을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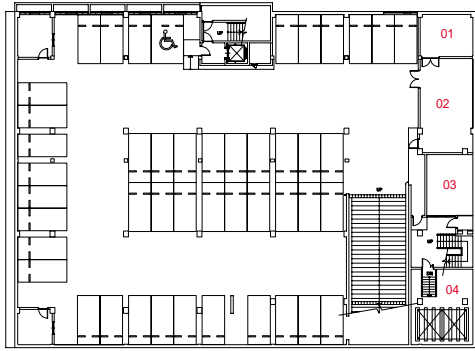


- 01_ 교실
- 02_ 사무실
- 03_ 유치원
- 04_ 주차장
- 05_ 전기실
- 06_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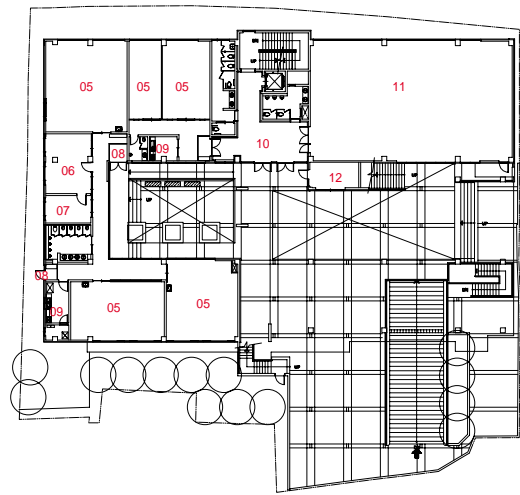
0 1 3 5 10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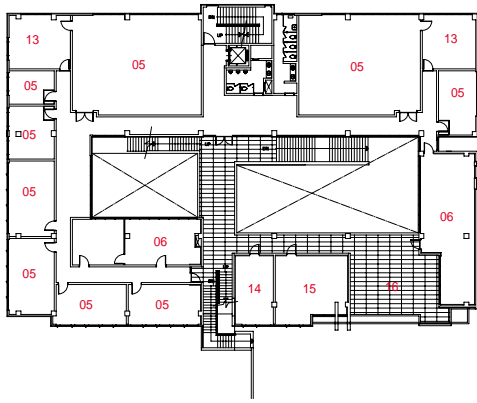
0 1.3 5 10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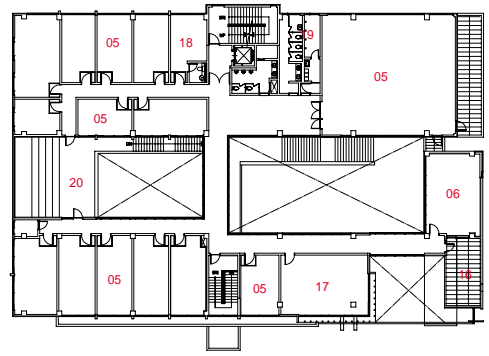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 비상발전기실
- 02. 전기실
- 03. 관리실
- 04. 물탱크실
- 05. 교실
- 06. 사무실
- 07. 교재실
- 08. 현관
- 09. 주방
- 10. 로비
- 11. 강당
- 12. 경비실
- 13. 부속실
- 14. 영상실
- 15. 도서실
- 16. 테라스
- 17. 회의실
- 18. 게스트룸
- 19. 샤워실
- 20. 옥외교육장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